예배시간 Service Time

라디오방송설교: 매주일 오전 8:30-9:00, AM 1450Hz 코앰TV방송설교: 매주목요일 오전 8:10, 주일 오전 10:30

주일예배 | Worship Service

장년부	1부 한어예배	AM 07:55
장년부	2부 영어예배	AM 09:20
장년부	3부 한어(통역)	AM 11:00
한어청년	Puren KCM	AM 11:00
영어청년	YAM	AM 11:00
학생부	Youth	AM 11:00
유년부	Children	AM 09:30
유치부	Preschool	AM 11:00
사랑부(장애부)	Agape Class	AM 11:00

주일성경공부 | Sunday Service

장년(한어)	AM 09:30
Korean Adult	
장년(영어)	AM 11:00
영어청년 YAM	PM 01:00
한어청년 Puren KCM	PM 01:15
학생부 Youth	AM 09:30
유년부 Children	AM 11:00
유치부 Preschool	AM 09:20/11:00
영아부 Nursery	AM 08:00/09:20/11:00

수요예배 | Wednesday Service

장년한어	Korean Adult	PM 07:00
영어	English Adult	PM 07:00
유년부	AWANA	PM 06:45
유치부	AWANA	PM 07:00

금요일 | Friday

한국학교 KLS	PM 07:00
학생부 Youth	PM 07:00
영어청년부 YAM	PM 07:30

토요일 | Saturday

한어청지기모임	AM 07:30

새벽기도 | Early Bird Prayer

한어/영어 KM/EM	AM 06:00

국내/해외 선교 Home/Overseas Mission

국내/해외 선 교 지 역

- 동아시아 50개 처소교회
- 밀알선교단
- 방송 선교지원
- 노숙자 둥지 선교회
- 아프리카 우물파기
- 이완구 장학사역
- 샤론센터
- 한국선원 선교회
- 소울싱어즈
- 작은교회 살리기
- 오병이어의 기적 M52
- 베네수엘라(정경석)
- 니카라과(전구/한미경/헤밀턴)
- 도미니카 아이티(최기철/Vilcaive)
- 우크라이나(박철규/김경희)
- 잠비아(Emile)
- 말레이시아(고인섭, 권민정)
- 터키(이성숙/쟈슈아)
- 슬로바키아(서일원/조정선)
- 의료사역 Healing 153
- 아시안 암 환우회

기독교 기관 선교

- 미주 남침례회 SBC
- 북미주 한인침례총회 KCNA
- 서북미 한인침례교 협의회
- 한인국내선교부
- 한인해외선교부
- 남침례교 직영 6대 신학교
- 한국침례신학대학교

섬기는 사람들 Serving Staff

담임 목사	최성은
수석 부목사(예루살렘/베들레헴)	민철기/253-444-8853
한어권 공동체 목사(안디옥/필라델피아/시니어)	유 훈/253-651-9152
기도원/건물관리 목사	안광일/253-335-9101
영어부 목사	프랭크 토레스/253-921-9954
어린이 사역 총괄 목사(빌립보/에베소)	남궁곤/253-753-8310
행정 목사(유스&영어청년)	안재훈/253-365-1105
마더와이즈/유년부사역지원	최수진/615-516-0389
영아/유치 사역 지원	남궁민희/253-753-8312
심방전도사(예루살렘/베들레헴)	봉숙오글/253-359-7869
심방전도사(빌립보/에베소)	이은경/253-334-6234
협동 목사(사랑부)	장영준/425-444-1669
원로 목사	문창선
은퇴 안수집사	이세진 정영길
시무 안수집사	유성렬 양태규 박종길 권태운 함명호 김인도 오금철 마이클 갤빈 리차드 데드리지 데니 윌리암슨
휴무 안수집사	롸저로
서무	명희터너 주영컬크우드
관리	명숙헨리
반주자	장신영 강은희 유영숙
1부 지휘자(음악디렉터)	김민희

창립 1975. 11.2 2016년 12월 11일

tfbc 타코마제일침례교회
Tacoma First Baptist Church

1328 S. 84th ST. Tacoma, WA 98444
교회 253) 535-5803 Fax 253)535-2240 www.tfbc.org

비전선언문 Vision Statement

타코마제일침례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무너진 **세대**를 **연결**하고 다른 **민족**들을 **화합**하고
교회와 **세상** 사이에 **다리**를 놓아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는 **성령공동체**이다.

제일 어린이 동산(Day Care)

1328 S. 84th ST. Tacoma
253) 535-94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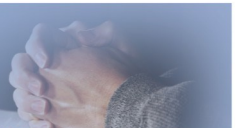
아름다운 기도원

28814 Mountain Hwy E.Graham
253) 847-2250

40th 1975-2015 Anniversary

타코마에서 땅 끝까지
From Tacoma to the ends of the Earth
한 영혼과 지역전도에 힘쓰는 교회!

주일예배
Worship Service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1부 예배 오전 07:55
3부 예배 오전 11:00

인도: 민철기 목사
설교: 최성은 목사

*경배와찬양	1부 / 122장 "참 반가운 신도여" 3부 / TFBC 찬양팀
*교 독 문	1부 / 구주강림(3) 3부 / 구주강림(3)
기 도	1부 / 명숙헨리 집사 3부 / 염준식 집사
봉 헌	1부 / 98장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 41장(1절) 3부 / 98장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 거룩한 곳
성도의교제	3부 / "야곱의 축복"
공동체소식	
성가대찬양	1부 / "거룩한 성" 3부 / "거룩한 성"
*성경말씀	사도행전 24:5
말씀선포	사도행전 강해 시리즈 51. "천하에 퍼진 염병"
응답찬송	1부 / 112장 "그 맑고 환한 밤중에" 3부 / "그리스도의 계절", 112장 "그 맑고 환한 밤중에"
축 도	

* 표는 일어나 주십시오(All Rise)

이달의 말씀 Word of the month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사도행전 20:24)

지난 주일 설교 Last Sunday Sermon

❑본 문: 사도행전 23:11-15 ❑제 목: 가장 최악의 상황들이 일어날 때

우리는 국내외적으로 최악의 시기를 보내고 있다. 사도 바울에게도 인생에서 최악의 위기가 찾아온다. 바울의 간증이 끝나기가 무섭게 바울을 죽이려는 사람들 (22: 22-23), 바울을 채찍질 하여 신문하려는 천부장 (22: 24-25), 바울을 죽이기로 작정한 40명의 자객들(23: 12-15)다. 각 자의 삶 가운데에도 이렇게 죽은 것 같은 상황들을 때로 경험할 것이다. 우리의 인생에,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신앙적으로 최악의 위기가 왔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바울은 이 최악의 상황을 어떻게 극복 했을까?

1.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하여 사는 사람이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는 이제 죽고 내 안에 살아 계신 예수님을 통하여 사는 새로운 인생" 을 고백했다. 그런 바울이기 때문에 그의 주인이신 주님 앞에 아뢰며 기도 했다. 자신이 핍박 받을 것도 알고 로마에서 순교 할 것도 각오한 바울이지만, 막상 상황들이 최악으로 치달으면 인간은 누구나 두려움에 사로잡힌다. 바울은 자신의 상황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 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행 23:11).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하여 울부짖는 자의 음성을 결코 외면하시는 적이 없다. 최악의 상황을 맞이할 때, 무엇을 보는가? 이 때 무엇을 듣는가? 최악의 상황이거든 부르짖어라.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라.

2. 사명에 초점을 맞추어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시리라 하시니라" 이 말은 바울의 생명은 로마로 가기전까지는 절대 끝나지 않는다는 확답이다. 예루살렘에서 바울을 죽이려는 사람들도 가득차지만, 그런 것은 최악의 상황으로 우리에게 비췰뿐,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 하셨다는 이야기가 전혀 아니다. 체포된 시점부터 바울이 순교하기까지 10년의 세월 속에서 적어도 3번을 감옥에 투옥 되어 있었다. 고난이 오랫동안 계속 될 때에는 의심이 들고, 믿음이 흔들릴 수 있다. 그러나 이렇게 최악의 상황이 지속될 때는 분명한 목적의식과 사명으로만 살아남을 수 있다. 사명을 갖고 있는가? 그리스도인에게 사명은 결국 두 가지 뿐이다. 예수님 사랑과 예수님 자랑이다. 예수님 사랑은 예배와 관계이며, 예수님 자랑은 전도와 사명이다. 사람이 최악의 상황들을 만나면, 인생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다시 바라보게 된다. 인생에 최악의 상황을 만날때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다시 붙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시 상황을 역전 시켜 주신다.

3. 지혜를 구하라

지혜는 지식을 활용 하는 방법이다.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을 어려운 상황 가운데 활용 하는 능력이 곧 지혜이다. 바울은 자신이 처한 최악의 상황에서 지혜를 발휘했다. '나는 로마 시민권자며, 나는 부활을 믿는다. 자신의 상황을 로마 군대에 알렸다' 바울은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이런 지혜를 발휘 한 것이 아니다. 바울의 최종 목표는 이 예루살렘에서 자신이 예수님을 만난 것을 간증하더라도 , 죽지 않고 로마로 호송되어서 거기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을 최종 사명으로 깨달았던 것이다. 바울은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을 듣고, 자신의 분명한 사명을 다시 깨달았기 때문에 이 최악의 상황에서 그런 지혜들을 발휘하게 된 것이다. 수 많은 삶의 지혜는 삶의 최악의 상황 가운데 사용하다가 발견되어 진 것들이다.

바울은 이 죽음에 둘러싼 최악의 상황 가운데서도 오히려 계속 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신앙에 대하여 공개적으로 간증을 할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오늘 대강절에 우리에게 가장 큰 격려가 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보내실 때의 상황은 말할 수 없는 최악이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메시야의 도래는 너무나도 초라했다. 하나님 아버지에게도 외면 당하셨다. 최악의 삶이었다. 그 이유는 이 땅에 살아가는 최악의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게 하시기 위함 이었다. 그런 이유가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그런 초라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겠는가? 예수님을 만난 우리가 최악의 상황을 겪더라도 고백해야 하는 찬송가가 있다. 찬송가 539장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을 이 아주 없도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최악의 상황은 최고의 예수님을 여러분 삶 가운데 모실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이다. 그런 예수님을 대강절 기간 삶 가운데 모시며 넘치기를 바란다.

중보기도 Intercession Prayer

1. 새벽 제단의 부흥을 위하여
2. 국내/해외 선교지와 사역자의 안전을 위하여
3. 2017년도 세워질 직분자/일꾼들을 위하여
4. 크리스마스 캐롤링을 위하여/12월 16일(금)
5. 크리스마스 뮤지컬을 위하여/12월 18일(주일)
6. 디모데 프로젝트 - 제자훈련을 위하여
7. 학생부 수련회를 위하여/12월28일-30일
8. 송구영신 예배를 위하여/12월 31일
7. 작은교회 살리기(포도나무교회 - 김명신 목사/ 아름다운교회-임은혜 사모) 위해
8. 이번주 지역교회 중보기도: 한마음 장로 교회 - 김미성 목사

목양편지 Pastoral Letter

사랑하는 타코마 제일 침례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 교회 헌법 (constitution)과 규약 (by-laws)의 통과를 바라보면서,

한국에서는 국회투표를 통해 헌정 역사상 두번째로 대통령이 임기중에 탄핵되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거기 앉아 있는 국회의원들 중에도 헌법을 지키지 않아 탄핵을 받아야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두 대통령 후보가 실제적인 법들을 여러 차례 어겼다는 강한 의혹을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개인 이 메일을 통해 국가 일급 기밀 사항을 유출한 의혹이고, 또 한사람은 백만장자 이상이면서 탈세를 오랬동안 했다는 의혹입니다.

뉴스가 발달된 지금 우리는 이런 모든 것을 사건은 물론 해석까지 메스컴을 통해 듣고 있지만, 방송사에 따라 편향된 보도를 하면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메스컴도 인기를 끌려고 사실이 아닌 상황을 보도하면, 명예 훼손죄와 무고 죄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명확한 죄도 유능한 변호사를 쓰면, 죄가 탕감되기도 하고 줄어 들기도 합니다. 반대로 죄를 혼자서 다 뒤집어 쓰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공평과 정의로 우리를 판단 하십니다. 세상에서는 걸리지 않는 죄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세상에서 억울하게 누명을 쓴 죄도 신원해 주실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세상이 어지러워도 하나님만이 이 세상의 주관자시요, 유일하신 참된 심판자이심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세상의 법 이전에 하나님의 법인 생명의 말씀에 먼저 순종하고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몇년간의 과정을 거쳐서 이제 우리 교회를 위한 정관을 정식으로 갖게 되었습니다. 안수 집사회, 정관 위원회, 자문 위원회, 제직 회의, 사무 처리회의 모든 과정을 거쳤으며 이제 만들어진 정관은 교단 변호사의 손에 넘어갔으며, 법적인 자문과 법율 용어상의 표현을 손을 보고 있습니다.그러나 정관이 다 만들어 졌다고 절대 끝이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의 사명은 만들어진 정관을 존중하고, 지키고, 함께 따르는 것 입니다.

우리 교회 헌법에는 우리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최고의 권위는 삼위일체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정의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믿는 신앙에 대한 것도 성경과 남침례 교단의 신앙고백에 의하여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우리는 가장 먼저 하나님이 주신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법들부터 온전히 지켜야 함을 잊지 말아야 겠습니다. 그 이유는 내가 살기 위함 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 시키시며…" (시편 19: 7)

사랑합니다. 감사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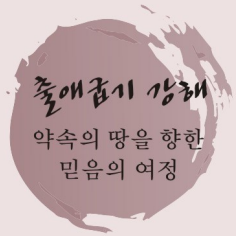
주안에서
최성은 목사 드림

수요찬양예배
Praise Service

수요일 저녁 7시

인도: 민철기 목사

찬양과기도	찬 양 팀
기 도	유정옥 집사
성경말씀	출애굽기 35:4-9 48. "마음에 원하는 자"
말씀선포	최성은 목사



봉사위원 Volunteer

	이 번 주		다 음 주	
기 도 Prayer	1부	명숙헨리 집사	1부	이건일 집사
	3부	염준식 집사	3부	이재찬 집사
	수요	유정옥 집사	수요	민정위드맨 집사
보육	영아	주영컬크우드, 정주컬킨	영아	크린키조앤, 지형펠링
	유치	순자케즐, 경옥켈리	유치	인숙탱, 형숙파커
주차장 Parking	권태운, 박용식(2부) EM (3부)		권경수, 임성남(2부) EM (3부)	
예배위원 Usher	안내: (1부) 박선영, 이정염 (3부) 백동선, 이재찬, 박순덕, 양영미, 이순컬리섹, 철옥핏셔, 김정숙 헌금: (1부) 박선영, 이정염 (3부) 김인도, 백남현, 백동선, 엄기추, 이성호, 곽경성			
주일오찬 봉사	12/11 베들레헴 공동체 정자얼프 마을, 예루살렘 공동체 진이베이커 마을 12/18 안디옥 공동체 김성진 마을, 에베소 공동체 진데드릿지 마을 12/25 성탄절(점심 식사가 없습니다.)			

사역스케줄 Ministry Calendar *일부 사역은 교회 및 부서 사역 일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2016년 12월	
11(주일)	월례회
16(금)	크리스마스 캐롤링
17(토)	헌아식 교육
18(주일)	성탄뮤지컬
25(주일)	성탄 및 성찬 연합예배/ 침례식
27(화)-30(금)	학생,영어청년 수련회
31(토)	송구영신 예배

2017년 1월	
1(주일)	신년연합예배/직분자 임명/헌아식
2(월)-7(토)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8(주일)	월례회
9(월)-21토)	사업체 심방
9(월)	서북미 목회자 신년 하례식
14(토)	학생,영어청년 스키
19(목)	시니어 공동체 모임
28(토)-29(주일)	제직세미나
28(토)	어와나 바이블 퀴즈

공동체 소식
Announcement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저희 교회를 **방문/등록**하여 주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 안내 위원들의 안내를 받아 **환영반실**에서 **식사**와 함께 **교제**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1. **지난주 사무처리회**에서 교회 정관이 참석 인원의 97% 찬성으로 통과되었습니다.

2. **메시아때 드려진 헌금과 교회 후원**을 합하여 노숙자 둥지 선교회, 사론센터, 타코마 항만선교회에 각각 $2,000씩 총 $6,000을 후원합니다.
※ D2BD 겨울수련회에 $1000 후원을 합니다. (타코마지역 청소년연합수련회)

3. **전도회 월례회:** 12/11(오늘) 3부 예배후. 각 전도회별로 모임이 있습니다.

4. **타코마교회 연합 찬양예배:** 12/11(오늘) 오후 6시. 새생명 교회.
우리 교회 성가대 및 성탄 뮤지컬팀 참여.

5. **디모데 프로젝트 제자훈련** 2단계(일대일 제자양육) 2기, 로비에 비치된 용지에 서명해 주시기 바람.
* 신청기간:12/11(오늘)-25(주일)
* 개강일: **2017년 1월 15일(주일) 오후 1:30.** 2기 과정은 주일만 개설
* 교재비: $20(2단계 과정 안내지 및 교재, 말씀 암송카드). 등록 문의: 이은경 전도사
* 1기에 수료 못한 재수강자 교재비 없음
* 문의: 민철기 목사(253-444-8853)

6. **헌아식 교육:** 한어권-12/17(토) 오후 1시. N-209. 영어권-12/17(토) 오전 10시. N-113
헌아식을 희망하는 36개월 미만의 자녀를 둔 부모님은 신청서 제출 바랍니다.
※ 헌아식: 2017년 1/1(주일) 신년 감사 연합 예배 시.

7. **크리스마스 캐롤링:** 12/16(금) 저녁 6시. 교회 주변 가정을 방문하여 예수님 나심을 축하, 찬양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성도들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함께 자리하여 풍성한 크리스마스 캐롤링이 되기 바랍니다. (캐롤곡: 기쁘다 구주 오셨네, 고요한밤 거룩한밤, Feliz Navidad)

8. **성탄 뮤지컬:** 12/18(주일) 오후 4시. 이를 위해 수고하는 교사들과 아이들에게 격려와 기도 바라며, 로비에 비치되어 있는 포스터 및 전단지를 가지고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 성탄 뮤지컬 무대에 사용할 성탄 트리가 필요합니다. 도움을 주실 성도들은 남궁목사에게 문의 바랍니다.

9. **성탄,성찬연합예배/ 침례식:** 12/25(주일) 오전 10:45. 1부 예배는 그대로 드려짐. 연합 예배 시, 각 부서에서 1명씩 올해 전도를 가장 많이 하신분에게 격려와 함께 **전도상을 시상**합니다

10. **학생/영어청년 수련회:** 12/27(화)-30(금) 장소: Camp Arnold. 회비: $80(12/11까지) 이후 $100

11. **송구영신 예배: 12/31(토) 오후 8시.** '새해 맞이 새해 첫 예배'가 주일인 관계로 12/31(토)에 송구영신 예배로 드립니다. 한해를 돌아보며, 감사의 예배를, 새해를 예배와 기도로 시작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 1/1(주일) 신년감사 연합예배로 10:45에 드려지며, 1부는 그대로 드립니다.

◈ 행정사역(Administration Ministry) ◈

❖ 데이케어 오전파트 타임 하실 교사 및 주방에서 국하실분을 모집합니다. 문의: 박정희 집사

❖ 겨울철에 기온이 내려가오니, 교회 주변 "빙판 주의" 바랍니다.

❖ 차 안에 가방 등 귀중품을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 교우동정(Compassion) ◈

◇ 중 보 코나드고링, 루이스잽슨, 이정덕, 댄포드, 비너브래들리, 릭달라, 제임스킹, 파예요크.
◇ 파 병 Matthew Smith, 김경우, 김동완, 조세훈
◇ 새교우 이주연가족, 양기남,

드려진 예물 Last week Offering

주일 오찬	금주
	다음주

※ 기념일을 맞아 주일오찬(주일오찬비용:$300)으로 섬기실 분들은 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16년 전교인 천그루 나무 심기 캠페인
주차장 및 배수관 공사를 위한 작정서를 작성하여 로비에 비치된 함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작정헌금시 한그루 나무심기 봉투(녹색)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전교인 천그루 나무심기 운동에 온 성도들이 마음을 모아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표: 1,000그루/$1,200,000 (한그루당 $1,200)
현 작정현황: 694그루/$832,800
현 헌금액: 787,651.21